

한일 언론의 상대국 국가정상에 대한 보도양상과 이미지 프레임 연구

- 언론 미디어의 국적과 이념적 지향성을 중심으로 -

김동윤*
dongkim@daegu.ac.kr

이현주**
ad_mvp@naver.com

정연주***
yunju0317@naver.com

<目次>

- | | |
|---------------------------------------|----------------|
| 1. 문제제기 | 3. 연구방법 |
| 2. 이론적 논의 | 3.1 주요개념정의 |
| 2.1 이미지의 정치적 효과 | 3.2 연구방법 |
| 2.2 언론의 이념적 지향성, 국적언론,
그리고 이미지 프레임 | 4. 분석결과 |
| | 5. 연구의 결론 및 함의 |

主 題 語: 국가정상(chief of state), 보도양상(media manners), 이미지 프레임(image frames),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 국적언론(press nationality), 이념적 지향성(ideological orientation)

1. 문제 제기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 한국과 일본은 사회문화적 유사성이 높으면서도 상당히 이질적이다. 지리적 근접성과 오랜 역사적 교류를 토대로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와 공감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양국 간의 외교안보적 긴장과 경계, 그리고 갈등은 양국의 외교적 마찰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곤 했다. 이 같은 양국의 관계적 모순은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외교 및 안보적 갈등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그러한 논란의 강도는 더욱

* 대구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대구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과정

*** 대구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과정

극단적으로 나타나기 일쑤였다.

한일 양국 갈등 관계의 모순은 두말할 것도 없이 양국 사이에 있어 왔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일본의 식민통치와 더불어 20세기를 시작한 한국은 가해국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침탈당한 역사적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과 1990년대 초반 휘몰아친 ‘버블 붕괴’ 이후 곤두박질 친 ‘잃어버린 20년’을 복원시키고, 국가적 번영과 발전을 위해 가해국으로서 역사적 명에는 더 이상 지지 않으려는 움직임에 노골적으로 드러내어 왔다. 가해국 일본과 피해국 한국 사이의 외교적 갈등은 이처럼 역사와 민족이라는 보다 본질적인 차원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이것이 양국 간의 교류 증진에도 상호 간의 불신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서 일본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일본 우익 세력들의 움직임과 일본 정부의 모순적 태도에 있다고 할 것이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의 고노 담화(1993년)와 무라야마 담화(1995년)는 일본 제국주의가 당시 저지른 강제 동원 및 식민통치에 대한 사죄로 국내 여론에 깊이 각인돼 있다. 그러나 1997년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주축으로 한 일본의 극우단체는 제국주의를 미화한 교과서 만들기에 앞장섰으며, 이에 일본 보수 정부 및 유망 정치인이 조직적으로 동참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모순적 태도에 대한 반일 감정이 고조되었다. 뿐만 아니라 잊어질 만하면 터져 나오는 일본 정치인의 ‘왜곡된 역사 인식에서 비롯된 망언’ 또한 반일 감정을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한국을 바라보는 일본의 시각 또한 긍정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목적으로 일본과의 갈등을 교묘하게 이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역사적, 외교적 갈등을 촉발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예컨대, 한국의 정치 지도자가 국민 여론에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는 ‘친일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일본과의 역사적 갈등을 교묘하게 활용함으로써 스스로를 ‘반일 혹은 친민족 인사’로 규정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간의 역사적 갈등과 논란은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틀로 다뤄지는 일이 다반사였고, 그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화와 토론의 과정보다는 역사적 과오와 그에 대한 책임 공방을 둘러싼 감정 다툼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것이다.

역사와 정치를 둘러싼 외교적 갈등과 논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일 양국에는 상생과 협력보다는 갈등과 반목의 관계가 고착화되었다. 그리고 한일 양국의 언론 보도는 이러한 관계를 확대재생산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고, 그에 따른 갈등 관계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누적되었다. 권력 대리인 관점에서 언론 보도가 한일 양국의 갈등을 단순히 반영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갈등 관계가 다양한 사회, 정치, 경제적 상황이나 현실 맥락과 결부되면서

필요 이상으로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구성되는 일도 적지 않았다. 한일 양국 간의 상반된 역사 인식과 그로 인한 감정적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권력 대리인으로서 언론의 역할과 책임은 양국 언론으로 하여금 상대국 관련보도에서 일정 수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는 규범적 본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기제로 작용한 측면이 그 어느 쟁점보다도 강하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일 국가정상에 대한 보도는 언론의 이러한 구성적 개입과 작용이 가장 민감하게 반영되는 주요한 보도 주제이다. 한일 양국의 이해관계를 가장 구체적이고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국가정상은 양국 언론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적 보도 아이템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외교적 갈등 상대국 국가정상에 대한 발언과 행보는 그 자체로 중요한 뉴스 가치를 가지게 되고, 보도에 따른 파급효과도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언론 보도의 주된 관심 사안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정상에 관한 보도는 해당 발언의 사실과 내용, 그것이 가지는 의미와 맥락, 이후 정치외교적 파장과 전망에 대한 민감한 분석이 동원되기 마련인데, 이러한 보도 과정에서 언론의 국적과 해당 언론의 이념적 지향성은 국가이익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강력하게 작용하게 된다.

이상의 논의에 기반하여, 이 연구는 한일 언론에 나타난 국가정상에 대한 보도양상과 이미지 프레임이 언론의 국적과 해당 신문의 이념적 지향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또한 상대국 국가정상에 대하여 구축한 이미지 프레임이 단순히 사실적 보도에 따른 자연스러운 것이기보다는 언론의 국적과 그 이념적 지향성이 반영된 구성물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보도양상과 이미지 프레임의 차이 이면에서 드러워진 국익 추구 전략을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대일 외교안보적 갈등 국면에서 우리나라 국가정상(대통령)에 대한 대일본 이미지 제고 방안에 대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의 수립과 그에 따른 국익 추구 전략의 수정과 보완을 위한 방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논의

2.1 이미지의 정치적 효과

이미지라는 개념은 형체(*figure*), 영상(*image reflection*), 심상(*impression*), 또는 표상(*representation*) 등의 개념)과 유사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통상적으로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연상이나 직감을 의미한다. 이미지는 이성과 합리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직접적인 자극

없이도 특정 대상에 대해 마음속에서 스스로 만드는 감각적인 인상 혹은 개인의 주관적 요인 및 제도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외모나 관념적인 개념²⁾을 일컫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이 같은 개념적 정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미지는 그것을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표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다분히 커뮤니케이션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되는 개념이다. 또한 이미지를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요소나 지표를 특정하기란 대단히 까다로운데, 이는 그만큼 이미지라는 개념이 복잡하고 다의적이며 다차원적이라는 것을 말한다.

이미지는 현실에서 대단히 큰 위력을 가진다. 일상이나 조직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간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 나가는 미시적인 수준에서부터 경제적 상행위나 정치행위자의 선거캠페인과 선거 과정에도 이미지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부각된다. 이에 따라 정치적 과정에서 정치 행위자는 자신의 이미지를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고 형성하기 위한 선거캠페인 전략을 기획하기도 하고, 그와 같은 활동을 통해 기존의 이미지를 새로운 이미지로의 전유를 시도하곤 한다. 정치학 연구에서 이미지의 개념적 구성도 연구자에 따라 상당히 이질적이다. 김현주(1999)³⁾는 정치인의 이미지를 친근감, 도덕성, 솔직함, 너그러움, 겸손 등의 인품 차원과 박력, 말솜씨, 국정, 수행능력 등의 능력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비해, 최영재와 박동진(2012)⁴⁾은 정치인의 이미지를 리더십과 소통 능력과 같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에 대한 인식적 차원과 어떤 대상이나 인물에 대한 긍정 혹은 부정을 중심으로 한 자동적이며 순간적인 느낌에 초점을 둔 감정적 차원으로 구분한다.

이와 같은 이미지가 사람들의 인지에 미치는 영향은 스키마(schema)라는 개념을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인간이 기억하는 지식의 추상적 구조로서 스키마는 특정 대상에 대한 기존의 지식을 선별적으로 주목하거나 재해석의 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그 대상에 대한 자극이나 정보를 수정하고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거나 저장된 기억을 되새길 때 스키마는 무의식적으로 인간의 뇌 속에서 작동하게 되는데, 이렇게 형성된 스키마는 대상을 지각하는 하나의 틀으로써 좀처럼 변화하지 않는다는⁵⁾ 특성을 가진다. 앞서 설명한, 정치 지도자에게 이미지가 중요한 이유도 한번 형성된 이미지 스키마가 좀처럼 변화시키기 어려운 속성을 가지기 때문이며, 이는 대중의 정치적 판단과 선택의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준거의

1) 김혜성(2010)「대학생의 정치지도자의 이미지에 대한 Q 방법론 연구: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평화연구』제18권 1호, pp.53-93

2) 정성호(2002)「대통령 후보자 이미지에 관한 유형 연구」『주관성연구』제12권, pp.130-159

3) 김현주(1999)「대통령후보에 대한 이미지 형성과 커뮤니케이션」『한국방송학보』제12권, pp.45-74

4) 최영재·박동진(2012)「정인과 CEO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인지적, 감정적 요소의 구성과 효과」『홍보학연구』제16권 3호, pp.250-272

5) 김혜성(2010)「대학생의 정치지도자의 이미지에 대한 Q 방법론 연구: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평화연구』제18권 1호, pp.53-93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정치인으로서 정치 지도자나 국가정상의 이미지가 가지는 의미는 더욱 크다. 정치인에 대한 이미지가 그러한 것처럼, 정치 지도자에 대한 이미지는 그 개인에 대한 이미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 지도자에 대한 이미지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와 같은 정치 지도자의 이미지는 유권자의 선거 과정이나 투표 행위는 물론, 한 사회나 국가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와 문화적 상을 형성하는 과정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⁶⁾는 점에서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치적 과정에서 이들 정치 행위자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 부분 언론의 재현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정치인이나 정치 지도자, 나아가 국가정상은 한 사회의 중요한 정보원으로서 언론의 동정이나 발언 보도를 통해 널리 확산된다. 신문 보도나 방송 뉴스를 통해서 국가정상의 일거수일투족은 전 국민은 물론 주변국의 주요한 관심거리가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언론의 반복적 묘사와 재현은 특정 정치인의 이미지를 고착시킬 수 있는데, 만약 그 정치인이 국가정상이라면 이에 대한 보도는 개별 국가정상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달리하는 외교 당사국의 국가 이미지 형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용자는 복잡한 정보들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언론 보도의 전 과정을 통찰적으로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기존의 통념이나 선입견, 심지어는 편견을 동원하여 단순화시켜 지각하려는 경향이 있는데(Graber, 1988⁷⁾; 임미영 외, 2010⁸⁾), 이는 언론 보도의 오남용이 미치게 될 폐해도 그만큼 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2 언론의 이념적 지향성, 국적 언론, 그리고 이미지 프레임

국제 보도는 개인과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통로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사안을 국제 사회에 전달함과 동시에 일반 공중이 접근하기 어려운 다양한 국제 사회의 이슈를 접할 수 있게⁹⁾ 해준다. 이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뉴스는 국제 사회에 자국의 이미지를 형성시킬 수 있고, 반대로 특정 국가에 대한 이미지를 국내 여론으로 수렴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언론 보도가 개별 언론이 속한 국가의 이해관계 또는 개별 언론이 추구하는

6) 정성호(2002)「대통령 후보자 이미지에 관한 유형 연구」『주관성연구』제12권, pp.130-159

7) Graber, D. (1988)『Processing the news: How people take the information tide』New York: Longman.

8) 임미영·안창현·감규식·유홍식(2010)「박근혜에 대한 보도 프레임 분석: 조선일보와 한겨레를 중심으로」『언론과학연구』제10권 3호, pp.457-498

9) 노형신·신호창·허종욱·박성화(2012)「해외 언론의 한국에 대한 취재보도특성과 반영된 한국 이미지: 2006-2009년 6개국 7개 언론사 보도에 대한 내용분석」『홍보학연구』제16권 3호, pp.208-249

이념적 지향성에 따라 특정 이슈를 재현하는 방식에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언론의 이러한 재현 방식의 차이는 주로 프레임을 통해 드러나는데¹⁰⁾, 종종 이는 한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규정짓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국제 보도를 통해 특정 국가정상에 대한 이미지가 그 개인의 이미지뿐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국가의 이미지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것은 한 국가나 사회의 통치권자로서 국가정상은 해당 국가의 가계, 기업, 정부의 모든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외신 및 국제 보도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 광범위하게 전달되기 때문이다¹¹⁾. 단순화시켜 말하자면, 한 국가의 정상은 그 나라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이며 기호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국가정상에 대한 이미지가 전달되는 과정과 방식에 작용하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일 관계처럼, 외교안보적 갈등이나 대립 관계에 놓인 경우 양국 언론은 자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하여 상대국 국가정상의 발언 내용이나 동정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기보다는 자국 중심적인 해석과 의미를 부여하기 마련이고, 이러한 보도 과정에서 국가정상의 이미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굴절되거나 심지어 왜곡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개별 국가의 개별 언론이 지향하는 이념적 지향적 역시도 국가정상에 대한 이미지를 그릇된 방식으로 형성하는 과정에 일정 부분 개입할 여지도 얼마든지 있다. 한 국가 내의 이데올로기적 각축의 과정에서 다른 진영의 논리와 반대되거나 상반되는 경우, 개별 언론은 상대국 국가정상에 대한 국익을 고려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자국 내 이데올로기적 진영의 논리를 일정부분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언론 보도에 대한 사례 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그동안 이루어진 몇몇 연구는 이와 같은 보도 개연성을 강력하게 시사해 준다. 임미영 등(2010)¹²⁾은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박근혜 관련 보도에 대한 귀납적 분석을 통해 원칙주의, 투사, 정치적 영향력이라는 긍정적 프레임과 주변인, 위상 저하 등의 부정적 프레임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는데, 전반적으로 박근혜의 정치적인 입지와 영향력을 강조한 프레임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와 약간 다른 맥락에서, 설원태(2012)¹³⁾는 <조선일보>와 <뉴욕타임스>의 역대 한미정상회담 보도에서 드러난 한미 대통령의 묘사 프레임을 ‘영웅-선생님’, ‘동격지도자’, ‘전략가’, ‘철부지-반항

10) 이준웅(2001)「갈등적 이슈에 대한 뉴스 프레임 구성방식이 의견형성에 미치는 영향」『한국언론학보』제 46권 1호, pp.441-482

11) 이윤진(2007)「영국에서의 한국이미지와 스토리텔링/서사의 변화: 2002년~2005년 <The Times>에 나타난 한국관련 기사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한국언론학보』제51권 1호, pp.32-58

12) 임미영·안창현·김규식·유홍식(2010)「박근혜에 대한 보도 프레임 분석: 조선일보와 한겨레를 중심으로」『언론과학연구』제10권 3호, pp.457-498

13) 설원태(2012)「역대 한미대통령 묘사프레임 비교 분석: 뉴욕타임스와 조선일보의 한미정상회담 보도를 중심으로」『언론정보연구』제49권 1호, pp.107-144

아’, ‘독재자-구결인’ 등 5개의 귀납적 묘사 프레임 추출한 다음, 한미 대통령에 대한 묘사 프레임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국내 정치적 요인의 변화, 한미관계의 변화, 언론환경의 변화 등의 다양한 외교안보적 환경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갈등과 대립의 외교안보적 위기를 거듭해 온 한일 양국의 역사와 관행을 감안해 볼 때, 이와 같은 분석의 결과는 한일 주요 언론이 상대국 국가정상을 묘사하거나 재현하는 방식에 일정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도록 해준다. 특히, 한일 간의 외교안보적 갈등은 그 자체로서 이념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국가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된 문제라는 점에서 이러한 보도 방식의 차이는 한일 주요 언론의 이념적 지향성과 국적에 따라 민감한 차이를 드러낼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외교안보적 갈등 당사국이자 경제적 경쟁자로서 한국과 일본의 이해관계는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이러한 갈등과 대립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국민적 정서와 감정으로 번져나가기도 했고, 이에 따라 상대국 국가정상의 발언과 동정은 언론 보도를 통해 다른 상대국 국민의 높은 관심 사안이었고, 그 결과 그들의 인지와 감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왔다. 이념 전파 확산자로서 그리고 자국의 국가 이익을 최우선시 하지 않을 수 없는 권력 대리인으로서 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감안할 때, 갈등과 대립하는 상대국 국가정상에 대한 보도 과정에는 국가의 이익이나 이해관계가 최우선적으로 반영되는 경향성이 높다. 갈등 및 대립 당사국 국가정상을 다루는 방식은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자사가 추구하는 이념적 지향성과 국적 언론으로서의 국익이라는 준거적 기준이 적용될 것이고, 이러한 준거적 기준은 상대국 국가정상의 발언이나 행동에 대한 해석과 의미부여 방식에 일정한 차이를 자아내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식민지배,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분쟁, 일본군 위안부, 야스쿠니 신사참배, 전쟁 미화 및 평화헌법 개정 등 다양한 외교안보적 현안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 정부의 갈등과 대립 국면을 상기해 본다면, 한국과 일본의 국가정상에 관한 언론 보도는 어떤 식으로든 국적 언론과 언론의 이데올로기성이 가장 강력하게 개입할 소지가 높다. 해석적 공동체의 근원으로서 이와 같은 언론 보도가 자국 내 상대국 국가정상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 틀을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이미지 틀을 통해 국적 언론으로서의 국익 추구 전략을 구사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2012년 한국과 일본의 보수 진영을 대표하여 선출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를 둘러싼 양국의 보수와 진보 신문의 보도양상과 그와 같은 보도를 통해서 구축되고 있는 이미지 프레임의 차이를 분석해 보고자 했다. 한일 양국 간의 갈등과 대립의 역사와 맥락, 그리고 양상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양국 언론의 국가정상에 대한 이미지는 다분히

감정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질 개연성이 높으며, 양국 언론에서는 특히나 부정적인 이미지 프레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추론된다. 외교안보적 갈등과 대립 당사국으로서 한일의 언론이 상대국 국가정상을 재현하는 방식의 차이가 해당 신문들의 국적과 이념적 지향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했다.

<연구문제 1>

한일 언론의 상대국 국가정상에 대한 보도양상과 이미지 프레임은 해당 언론의 국적과 이념적 지향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국적 언론은 국제 뉴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국가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복잡 다양한 이념적 가치를 생산한다. 국제 질서를 선도하기 위해 각 국가들은 언론을 이용해 자국의 정치 외교적 이슈를 관리하고, 국가안보를 유지하고, 자국의 가치와 이미지를 향상시키기(구영록, 1994¹⁴); 김성해, 2008¹⁵) 위해 노력한다. 미국의 경우, 일찍이 언론을 활용한 공공 외교에 노력을 기울여왔고, 국제 정보 질서를 주도하고 있다. 미국의 <CNN>은 세계적인 뉴스 전문 채널로 자리 잡았고, 영국의 <BBC>는 세계 전 지역에 방송을 송출하면서 자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적 언론은 정치적 안정 및 경제적 번영과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체의 이익으로서 국가 이익을 반영한다(이장한 외, 2007¹⁶); 김성해, 2008¹⁷). 언론 보도는 국가적 실리 차원의 이해관계와 언론의 주관적 견해를 바탕으로 특정 방향으로 치중된 보도양상과 특정한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며, 국제 뉴스에 대한 관심은 국가 간의 정치 외교적 이해관계와 맞물린다. 언론이 재현하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이미지는 상대국과의 교역이나 정치 외교적 우호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이러한 관계성은 어떤 식으로든 언론 보도에 반영되기 마련이다.

국제 보도에서 국가정상은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이자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적 이슈를 만들어 내는 의제 생산자이다¹⁸). 물리적으로 해외의 특정 국가나 국가정상을 접하기 어려운 일반인들은 언론의 묘사에 따라 특정 국가와 국가정상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된다. 또 직접 경험하

14) 구영록(1994)「대외정책의 핵심개념으로서의 국가이익」『한국과 국제정치』제19권, pp.1-14

15) 김성해(2008)「국가이익과 언론: 미국 엘리트 언론의 국제통화체제 위기 보도를 중심으로」『한국언론정보학보』제5권 42호, pp.205-248

16) 이장한·김승현·최현철(2007)「한국 언론인의 국익에 관한 인식유형 연구: Q방법론의 적용」『주관성 연구』제48권 6호, pp.84-109

17) 김성해(2008)「국가이익과 언론: 미국 엘리트 언론의 국제통화체제 위기 보도를 중심으로」『한국언론정보학보』제5권 42호, pp.205-248

18) 최영재(2005)「언론의 정파성과 대통령 보도, 그리고 언론자유」『언론과 법』제4권 2호, pp.49-80

지 않는 한, 언론 또는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나 국가정상에 대한 이미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형성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언론의 국가정상에 대한 평가나 재현 방식은 곧 국가 간 외교적 관계를 가늠하고, 그 맥락 속에서 특정 국가정상의 리더십에 대한 큰 상을 그리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국가정상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언론의 재현 방식이 자칫 특정 국가정상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시킬 우려가 다분하며, 특정한 시각으로 전달함으로써 고정관념과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는 것이다¹⁹⁾. 그리고 이러한 개연성과 위험은 외교안보적 동반자 관계보다는 갈등과 대립 당사국 사이에서 야기될 가능성이 더욱 높으며, 따라서 한일 양국 언론이 상대국 국가정상의 이미지 프레임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학술적 관심 사안이라 할 것이다.

언론에 의한 국가정상 관련 보도는 수용자의 뇌리에 각인되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의해 재현되는 국가정상의 이미지는 언론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이라는 규범적 틀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은 그것으로 말미암은 국익 차원의 고려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이 언론의 규범적 역할과 본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국익을 우선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위치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사 갈등, 영토 분쟁 등과 같은 국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더욱 언론의 규범적 역할과 책임이 더욱 제한적으로 적용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상대국 국가정상에 대한 자국의 언론 보도 이면에는 국익 추구 전략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실제 한일 관계는 한일 국가정상뿐 아니라 정치인의 경솔한 발언만으로도 국가간 외교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소위 ‘망언’으로 비하되고, 그 결과 한일 외교안보적 갈등 위기를 넘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는 전례가 많았는데, 이는 그 사안 자체가 가지는 중요성 이외에 그러한 보도를 통해서 획득하고자 하는 국익 추구 전략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부분이다.

한일 언론에 나타난 독도 관련 분쟁 보도에 대한 분석²⁰⁾은 한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반일 정서와 국가이익’이라는 요인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주요 신문을 대상으로 한일전 스포츠 경기에 대한 보도 분석²¹⁾에서는 양국 언론이 자국 팀의 승패에 따라 보도 태도와 논조가 극명하게 차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 이윤진(2007)「영국에서의 한국이미지와 스토리텔링/서사의 변화: 2002년~2005년 <The Times>에 나타난 한국관련 기사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한국언론학보』제51권 1호, pp.32-58

20) 윤영철(1998)「한일신문의 독도관련 분쟁 보도의 비교분석」『한국사회과학논집』제29권, pp.99-132

21) 조성식·유재구·김혜자(2007)「월드베이스볼클래식(World Baseball Classic) 한일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주요 신문보도 비교분석」『한국체육학회지』제46권 6호, pp.75-100

자국의 승리는 단순히 스포츠 경기 차원을 넘어 민족적 자긍심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승리의 의미를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자국의 패배는 그 의미를 축소하여 단순한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나타내거나 그 이면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민족적 자긍심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은 한일 언론이 정치 외교적인 갈등 사안뿐만 아니라 스포츠와 같은 비정치적인 쟁점에 대해서도 특정한 방식으로 국가 이익을 고려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상의 논리에 기반해 볼 때, 한국과 일본 양국의 언론의 국가정상을 다루는 방식의 차이는 그 이면에 작용하고 있는 국익 추구 전략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자국 내 이데올로기적 가치의 전달자 혹은 국익의 파수꾼으로서 한일 언론의 규범적 역할과 책임이 아닌 사회현실적 위상과 자국 내 구조는 외교안보적 갈등 당사국 국가정상에 대한 편향된 보도가 정당하게 이루어질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고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일 언론의 국가정상에 대한 보도양상 및 이미지 프레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는 것은 해당 신문의 이념적 추구 전략 이외에도 이들 개별 신문이 추구하고자 하는 국익 추구 전략의 실체를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2>

한일 언론의 상대국 국가정상에 대한 이미지 프레임의 차이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국익 추구 전략은 무엇이며, 그러한 전략은 해당 신문의 국적이나 이념적 지향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3. 주요 개념 및 연구방법

3.1 주요 개념 정의

3.1.1 한일 언론과 이념적 지향성

한일 언론은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언론을 말한다. 외교안보적 갈등 당사국에 대한 국가정상에 대한 이미지 프레임의 차이는 개별 신문의 국적은 물론 이념적 지향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한국 언론은 진보성향의 <한겨레신문>과 보수성향의 <조선일보>를 선정하였고, 일본 언론은 진보성향의 <아사히신문>과 보수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을

선정하였다.

3.1.2 국가정상

국가정상은 한 사회와 국가의 행정 권력을 집행하는 최고 통치권자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국가정상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를 말한다. 두 국가정상은 공히 보수 정권의 재창출이라는 사회정치적 역할과 임무를 부여 받아 2012년 12월 나란히 한국과 일본의 대통령과 총리로 당선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3.1.3 보도양상

보도양상은 언론이 일정한 판단의 기준으로 어떤 사안을 다루는 보도 기법을 뜻한다. 보도의 외형적인 특징과 패턴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채택한 보도양상의 분석을 위해 이 연구는 기사유형, 보도주제, 국가정상에 대한 태도에 초점을 두고자 했다. 이들 개념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기사 유형

기사 유형은 해당 언론사의 뉴스 의제가 가지는 비중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기준이다. 기사 유형은 ‘스트레이트’, ‘사설’, ‘해설’, ‘칼럼·논단’, ‘기획·연재’, ‘인터뷰’로 구분한다.

② 보도 주제

보도 주제는 언론 보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쟁점의 내용을 일컫는다. 귀납적 내용 분석을 통해 분석된 이 연구의 보도 주제는 한일 양국의 외교안보적 갈등과 대립을 감안하여 ‘역사인식’(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국가 지도자의 행보 및 발언), ‘국제외교’(한일관계를 둘러싼 국제여론동향과 동아시아 외교 전망), ‘경제정책’(자국의 경제 상황 및 경제 전략), ‘정치자본’(양국 보수 정권의 정치 기반을 위한 움직임), ‘사회문화’(한일 자국과 관련된 사건 사고에 대한 이슈)로 구분했다.

③ 국가정상에 대한 태도

국가정상에 대한 태도는 기사의 전반적인 느낌이나 뉘앙스를 뜻한다. 기사의 제목과 기사 본문에 드러난 논조에 중점을 두고 분석한 국가정상에 대한 태도는 크게 세 가지, 즉 ‘공정적 태도’, ‘중립적 태도’, ‘부정적 태도’로 구분했다.

3.1.4 이미지 프레임

이미지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지각되는 직관적인 인상이나 뉴스 수용자 개인이 느끼는 특정 인식의 범주를 말하며, 프레임은 뉴스 보도가 주장하고자 하는 큰 줄기 혹은 골격을 말한다. 이에 이 연구는 이미지 프레임을 한국과 일본의 진보 및 보수 언론이 상대국 국가정상 관련 보도에서 재현하고 있는 인식의 범주를 몇 가지의 보도 틀로 유목화 하였으며, 이를 위해 분석 대상으로 삼은 뉴스 기사에 대한 귀납적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한일 양국의 국가정상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미지 프레임은 모두 6개였으며, 이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이미지 프레임 및 프레임 정의

구분	이미지 프레임	프레임 내용
부정적 이미지 프레임	퇴행적 반항아	▶ 퇴행적 역사인식에 관한 국제적인 망언과 발언 ▶ 주변국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행동 강행 ▶ 인사개편 난항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인 측근정치
	체화된 독재자	▶ 극우적인 역사 인식을 지키기 위한 보수집결 ▶ 내셔널리즘(국수주의)을 자극하여 군국주의 야망 실현 ▶ 박정희 독재정권 당시로의 회귀 의욕 ▶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국정개입
	무능한 주변인	▶ 사회·정치·경제 등 문제 해결에 대한 추진력 부족 ▶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관리 실패 ▶ 측근 인사들의 권력남용
	은밀한 전략가	▶ 보수집결과 정치적 기반을 위한 진영논리 ▶ 유리한 현재 정세를 이용하여 상대국을 배제 시키려는 움직임 ▶ 국제 사회의 움직임을 파악한 유리한 전략 및 대처
긍정적 이미지 프레임	소신적 원칙주의자	▶ 자신의 소신이나 견해를 주도적으로 표현하는 태도 ▶ 정책 일관성과 의지를 나타내는 책임의식 ▶ 원칙주의, 원리주의에 기반 한 국가 정책 수립
	독자적 개혁자	▶ 과거사를 탈피하고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역할 모색 ▶ 활발한 국제 정상외교 추진 ▶ 관례에서 벗어난 새로운 정책 수립

표에서 보듯이, 귀납적 내용분석을 통해 추출된 한일 양국 국가정상에 대한 이미지 프레임은 크게 두 가지, 즉 ‘부정적 이미지 프레임’과 ‘긍정적 이미지 프레임’으로 구분된다. 먼저, 4개의 부정적 이미지 프레임에는 해당하는 ‘퇴행적 반항아(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앞세우거나 어떤 사안이나 대상에 맞서 대들거나 반대하는 행동의 이미지)’, ‘체화

된 독재자(절대 권력을 기반으로 모든 일을 자신의 보수집결을 앞세워 처리하거나 자신의 속마음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신비주의에 경도된 이미지), ‘무능한 주변인(국가 행정 전반에 걸쳐 문제 해결에 대한 추진력과 리더십이 부족하거나 측근들에 의해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이 자주 흔들리는 이미지)’, ‘은밀한 전략가(현재 정세를 잘 파악하여 국제 사회에서 자국의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고 이념적 지향성에 기반 하여 상대 국가를 배제시키려는 이미지)’ 등이다. 다음으로, 2개의 긍정적 프레임에는 ‘소신적 원칙주의자(국정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입장을 바탕으로 자신의 소신이나 견해를 주도적으로 표현하는 이미지)’와 ‘독자적 개혁자(활발한 국가 운영을 위해 이례적인 정책 수립과 주변국과의 협상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행동을 취하는 이미지)’ 등이다.

3.1.5 국가정상에 대한 수식어

수식어는 특정 프레임의 방향성을 설정해주는 분석 단위로서 기사의 제목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²²⁾. 국가정상에 대한 수식어는 기사 본문이나 내용에서 국가정상, 즉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 앞뒤에 사용되는 형용사나 이 두 사람을 수식하거나 꾸며주는 단어나 구를 일컫는다. 이에 이 연구는 앞서 제시한 국가정상에 대한 6개의 이미지 프레임을 분석하고, 이러한 프레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언어적 표현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상대국 국가정상에 대한 이미지 프레임이 구체적으로 보도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3.1.6 국가 이익

국가 이익이란 개별 국가가 어떤 사안과 관련하여 추구하는 본질적인 이익으로서 국외적으로 표방하는 자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한다. 언론은 주관적 견해나 입장을 통해 국가 이익을 적극적으로 언론 보도에 반영하고자 하며, 이러한 국익 추구 전략은 외교안보 당사국과의 관계성 속에서 추구된다. 외교안보적 갈등 및 대립 당사국으로서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상황과 정치적 현실을 감안할 때, 한일 언론은 자국의 국익을 우선하기 위하여 언론 보도를 통해 자국의 국익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미디어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22) 임순미(2012)「정치인의 이미지 프레임: 안철수에 대한 보고 양태 분석」『현대정치연구』 제5권 2호, pp.5-44

3.2 연구 방법

3.2.1 자료 수집 및 기사 표집

이 연구는 외교안보적 갈등 및 대립 상대국으로서 한일 언론의 상대국 국가정상에 대한 이미지 프레임의 차이를 알아보고, 이러한 프레임 이면에 숨겨진 한일 언론의 국익 추구 전략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한일 언론이 국가 이익을 반영하고 구성하는 방식은 언론의 국적 이외에도 언론의 이념적 지향성에 따라 확연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한국은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라는 진보와 보수 진영의 이념적 가치를 지향하는 신문을 선택하고, 일본은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을 그에 상응하는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기사에 대한 분석 시기는 2013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 양국 언론 모두 동일한 시점을 적용했다. 2012년 12월 경 새 보수 정권을 출범시킨 한일의 두 국가정상은 집권 3년차에 접어들어서도 제대로 된 한일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외교안보의 담보 상황 속에서 한일 언론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언론의 관심에는 어떤 식으로든 자국의 이익이나 이해관계 및 국익 추구 전략이 반영될 소지가 다분하다.

분석 대상 신문에 대한 자료 수집에 사용한 핵심어는 한국 신문을 대상으로는 ‘아베 신조’, ‘아베’, ‘아베 총리’, ‘아베 수상’을 키워드로 검색했다. <조선일보>의 경우 <조선닷컴>이 제공하고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활용했고, <한겨레신문>의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카인즈(kinds)를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일본 신문을 대상으로는 리츠메이칸 대학의 <코리아연구소>에서 제공하는 학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을 핵심어로 검색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집된 1차 분석 신문 기사의 수는 모두 2,463 건이었으나, 기사 본문이 500자 이하의 단신 기사인 경우와 상대국 국가정상을 단순히 언급하고 있는 관련성이 낮은 기사를 제외하여 462건을 최종 분석 대상 기사로 선정하였다.

<표 2> 분석 기사의 수

단위: 전(%)

구분	언론사				전체
	조선일보	한겨레	요미우리	아사히	
샘플 수	823 (33.4)	625 (25.3)	517 (21.0)	498 (20.3)	2,463 (100.0)
분석 샘플 수	109 (23.6)	130 (28.1)	110 (23.8)	113 (24.5)	462 (100.0)

3.2.2 코딩 및 코더 간 신뢰도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462건의 기사들 가운데,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의 기사는 한일 문제에 식견이 높은 대학원생 2명이 코딩에 참여했고,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의 기사 역시 한일 문제에 식견이 높은 대학원생 1명이 코딩에 참여했다. 일본 신문을 분석한 대학원생은 이 분야 연구 실적이 다수 있으며, 일본어 능력 1급 자격증과 일본 교환 학생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본격적인 코딩에 들어가기 전, 이들 3명의 코더들을 대상으로 논문의 취지와 목적을 감안한 코딩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과 협의가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한일 신문 30개씩을 뽑아 예비 코딩의 과정을 통해서 의견의 일치와 협의 과정을 추가적으로 거치도록 함으로써 코더 간 일치도를 높이고자 했다.

4. 분석 결과

4.1 한일 언론의 보도양상

이 연구는 외교안보적 갈등 당사국 한일 언론의 상대국 국가정상에 대한 보도양상과 이미지 프레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여기서는 한일 언론의 양국 국가정상에 대한 보도양상의 차이를 기사 유형, 보도 주제, 그리고 상대국 국가정상에 대한 보도 태도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4.1.1 한일 언론의 기사유형

한일 언론이 상대국 국가 정상을 다룬 보도의 기사 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기사유형

단위: %(건)

기사유형	신문사				전체
	한겨레	조선일보	아사히	요미우리	
스트레이트	6.9(9)	32.1(35)	22.1(25)	24.5(27)	20.8(96)
사설	20.8(27)	1.8(2)	15.9(18)	29.9(20)	14.5(67)
해설	60.8(79)	54.1(59)	45.1(51)	25.5(28)	47.0(217)
칼럼·논단	7.7(10)	8.3(9)	15.9(18)	20.9(23)	13.0(60)
기획·연재	3.8(5)	3.7(4)	0.0(0)	8.2(9)	3.9(18)
인터뷰	0.0(0)	0.0(0)	0.9(1)	2.7(3)	0.9(4)
전체	100(130)	100(109)	100(113)	100(110)	100(462)

$\chi^2=80.573$, $df=15$, $p<.000$

표에서 보듯이, 한일 언론은 전체적으로 양국의 국가정상을 ‘해설기사’(217건, 47.0%)로 다룬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일 언론이 상대국 국가정상과 관련한 보도를 비교적 비중 있거나 심층적으로 다루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으로, 외교안보적 갈등 상대국에 대한 한일 언론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진보 성향의 <한겨레신문>은 해설과 사설 기사 비중이 매우 높았던(80% 이상) 것에 비해, 보수 성향의 <조선일보>는 해설 기사와 함께 스트레이트 기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견주어, 진보 성향의 <아사히신문>이 보수성향의 <요미우리신문>보다 상대적으로 ‘해설 기사’(51건, 45.1%)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데 비해,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은 ‘해설 기사’(28건, 25.5%) 이외에 ‘스트레이트’(27건, 24.5%), ‘사설’(20건, 19.9%), ‘칼럼 및 논단’(23건, 20.9%) 등의 기사 비중이 다양하게($x^2=80.573$, $df=15$, $p<.000$)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한일 언론 가운데 진보 성향의 언론이 ‘해설기사’에 치중함으로써 양국 국가정상을 다소 비중 있게 보도하려는 경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해설 기사의 특성과 보수 성향 신문과의 차이를 감안할 때, 이는 진보 성향의 신문은 보수 성향의 신문에 견주어 한일 양국 정상에 개별 신문의 입장과 견해를 상대적으로 폭넓게 반영하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강했다는 추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1.2 보도 주제

이어서 한일 언론이 상대국 국가 정상을 어떠한 주제로 다루었는가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한일 언론의 보도 주제

단위: %(건)

보도주제	신문사				전체
	한겨레	조선일보	아사히	요미우리	
역사인식	31.5(41)	13.8(15)	21.2(24)	20.9(23)	22.3(103)
국제외교	18.5(24)	25.3(46)	45.1(51)	37.3(41)	35.1(162)
경제정책	10.0(13)	20.2(22)	4.4(5)	5.5(6)	10.0(46)
정치자본	18.7(39)	18.3(20)	16.9(19)	29.3(37)	24.0(111)
사회문화	9.2(12)	6.4(5)	12.4(14)	6.4(7)	8.2(38)
기타	0.2(1)	0.2(1)	0.0(0)	0.0(0)	0.4(2)
전체	100(130)	100(109)	100(113)	100(110)	100(462)

$x^2=115.119$, $df=21$, $p<.000$

표는 국가정상 이미지와 관련한 보도의 주제는 전체적으로 ‘국제외교’(162건, 35.1%)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어서 ‘정치자본’(111건, 24%)과 ‘역사인식’(103건, 22.3%)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일의 역사 및 과거사 갈등이 한일 언론 보도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논란과 갈등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역사 인식과 관련하여 국제 사회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는 아베 총리의 발언과 국제 사회에 이를 쟁점화 한 박근혜 대통령의 비난과 반대 논리가 일본 언론에 교차되어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일 언론이 상대국의 ‘경제정책’(46건, 10.0%)이나 ‘사회문화’(38건, 8.2%) 등 외교안보적 갈등과 대립을 벗어난 주제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추론해 볼 수 있다.

신문별로는, <한겨레신문>은 ‘역사인식’(41건, 31.5%)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룬 가운데, <조선일보>는 ‘역사인식’(15건, 13.8%)보다는 ‘국제외교’(46건, 25.3%)와 ‘경제정책’(22건, 20.2%)과 관련된 주제를 상대적으로 많이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국제외교’(51건, 45.1%)와 ‘역사인식’(24건, 21.2%)을 주제로 한 보도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요미우리신문>은 ‘국제외교’(41건, 37.1%)와 ‘정치자본’(37건, 29.3%)에 대한 주제를 상대적으로 많이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한일 언론은 양국 국가정상에 대한 보도의 주제를 갈등과 논란의 현안에 초점을 두면서도, 개별 언론사가 다루는 보도 주제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x^2=115.119$, $df=21$, $p<.000$)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4.1.3 국가 정상에 대한 태도

상대국 국가정상에 대한 보도 태도는 외교안보적 갈등 상대국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분석은 상대국과의 갈등을 바라보는 인식을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표 5> 한일 언론에 나타난 국가 정상에 대한 태도

단위: %(건)

국가정상에 대한 태도	신문사				전체
	한겨레	조선일보	아사히	요미우리	
부정적	48.5(63)	63.3(69)	42.5(48)	66.4(73)	54.8(253)
중립적	45.4(59)	28.4(31)	37.2(42)	32.7(36)	36.4(168)
긍정적	6.2(8)	8.3(9)	20.4(23)	0.9(1)	8.9(41)
전체	100(130)	100(109)	100(113)	100(110)	100(462)

$x^2=39.198$, $df=6$, $p<.000$

위의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한일 언론은 외교안보적 갈등과 대립을 보이고 있는 상대국 국가정상에 대하여 일제히 긍정적인 보도 태도(168건, 36.4%)보다는 부정적인 보도 태도(253건, 54.8%)를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일 언론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는데, <조선일보>(69건, 63.3%)와 <요미우리신문>(73건, 66.4%)은 <한겨레신문>(63건, 48.5%)과 <아사히신문>(48건, 42.4%)에 비해 상대국 국가정상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 태도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보수 성향의 신문들이 상대국 국가정상에 대한 보도 태도가 훨씬 더 부정적인데 반해, 진보 성향의 신문은 상대국 국가정상에 대해 보수 성향의 신문에 견주어 훨씬 더 유화적인 보도태도를 견지한다($\chi^2=39.198$, $df=6$, $p<.000$)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은 한일 언론이 양국 정상에 대한 보도 태도는 언론의 국적보다는 이념적 지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줌과 동시에 개별 신문의 이념적 보수성이 상대국 국가정상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여론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이익의 반영 주체로서 국적 언론의 위상과 구조적 한계를 감안할 때, 진보와 보수 성향 신문에 나타난 이러한 차이는 국가의 이익을 반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국적보다는 신문의 이념적 지향성이 더욱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보수 정권의 계보와 명맥을 잇는 권력의 주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분석의 차이는 동시에 보수 신문이 자국의 보수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가정상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과정에 진보 성향의 신문에 비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해 준다.

4.2 한일 언론의 이미지 프레임과 그 수식어

4.2.1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 프레임과 수식어

한일 언론의 상대국 국가정상에 대한 보도는 한일 양국 국민들에게 일정한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외교안보적 갈등 당사국 국민에게 상대국 국가정상에 대한 이미지 프레임은 국적 위기라는 국면과 교묘하게 결합하여 필요 이상의 논란과 갈등의 단초가 되기도 하고, 이는 나아가 상대 국가 전체를 바라보는 상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먼저, 일본 신문에서 재현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 프레임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 프레임

단위: % (건)

이미지 프레임	신문사		전체
	아사히	요미우리	
퇴행적 반항아	7.1(8)	20.0(22)	13.5(30)
체화된 독재자	13.3(15)	15.5(17)	14.3(32)
무능한 주변인	12.4(14)	19.1(21)	15.7(35)
은밀한 전략가	30.1(34)	25.5(28)	27.8(62)
소신적 원칙주의자	21.2(24)	16.4(18)	18.8(42)
독자적 개혁자	15.9(18)	3.6(4)	9.9(22)
전체	100(113)	100(110)	100(223)

$\chi^2=18.368$, $df=5$, $p<.003$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을 ‘은밀한 전략가’(62건, 27.8%)라는 이미지 프레임을 가장 적극적으로 구성하고 있었다. 그 다음이 ‘소신적 원칙주의자’(42건, 18.8%)라는 긍정적인 이미지 프레임이 도출되었고, 이어서 ‘무능한 주변인’(35건, 15.7%), ‘체화된 독재자’(32건, 14.3%), ‘퇴행적 반항아’(30건, 13.5%) 등의 이미지 프레임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이미지 프레임은 신문의 이념적 지향성에 따라 일정한 차이가 있는($\chi^2=18.368$, $df=5$, $p<.003$)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퇴행적 반항아’ 이미지 프레임에 있어 <요미우리신문>(22건, 20.0%)은 <아사히신문>(8건, 7.1%)에 견주어 ‘퇴행적 반항아’라는 이미지 프레임을 지배적으로 구축하고 있었다. 또한 <요미우리신문>(21건, 19.1%)은 ‘무능한 주변인’이라는 이미지 프레임 구축에 <아사히신문>(14건, 12.4%)보다 더욱 적극적이었다. 이에 비해, <아사히신문>은 <요미우리신문>에 견주어 ‘소신적 원칙주의자’와 ‘독자적 개혁자’ 이미지 프레임 구축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외교안보적 갈등 상대국 국가정상에 대한 이미지 프레임이 해당 국가 언론의 이념적 지향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앞서 제시한 ‘보도 주제’에 대한 분석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외교안보적 갈등 상대국 정상에 대한 이미지 프레임 구축 전략은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에 따라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어서 일본의 신문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 프레임 구축 전략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분석 대상 기사의 제목과 기사 내용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 수식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이미지 수식어

이미지 프레임	이미지 수식어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퇴행적 반항아	配慮が通じない(배려가 통하지 않는)/側近政治(측근정치)/失敗の背景には、朴氏独特の人事手法がある(실패의 배경에는 박씨의 독특한 인사방법이 있다) 気になる人物を書き留めた手帳の中から選ぶ閉鎖的なやり方(마음에 드는 인물을 적어둔 수첩에서 골라 선택하는 폐쇄적인 방법)	マリー・アントワネット「マリアントンハネ」(마리 앙투와네트「말이 안통하네」)/固執(고집)/理解に苦しむ捜査(이해할 수 없는 수사)
체화된 독재자	報道への圧迫許されぬ(보도 압박 용서받지 못할)/まるで時計の針が逆戻りしてしまったかのような出来事(마치 시계 바늘이 퇴보 해 버린 것 같은 사건)/報道の自由脅かす(언론의 자유 위협)/言論の自由、国政介入疑惑(언론자유 국정개입 의혹)/民主主義、損なった(민주주의 손상)/きな臭い体制の復活(수상쩍은 체제 부활)/父の故朴正熙(パクチョンヒ)元大統領の「影」(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림자)/公権力で圧迫(공권력으로 압박) 「親日」のレッテル(친일딱지)	軍国主義(군국주의)/「韓日は仇敵関係だったが、あくまでも過去だ」と述べた父親の意義が損なわれ、「한일은 원수관계였지만, 어디까지나 과거일 뿐이다」라고 말한 아버지의 의미가 없어져버려/民主主義の破壊行為(민주주의 파괴 행위)/親日派(친일파)/親日派の娘(친일파의 딸)/独裁者(독재자)/親日売国ど奴(친일매국노)/独断(독단)/公権力の行使(공권력 행사)/側近の介入(측근개입)/捜査介入(수사개입)/側近政治(측근정치)
무능한 주변인	政府の組織改編案をめぐり、難航(정부의 조직 개편 안을 두고 난항)/混乱続きだ(혼란의 연속)/右往左往政府の信頼沈没(우왕좌왕 정부의 신뢰 침몰)/無責任な社会(무책임한 사회)/大統領の支持率が急落(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求心力が低下(구심력 저하)	支持率陰り(지지율 그늘)/決断せぬ韓国へ「疲れ」(결정하지 못한 한국「피곤」)/人事で失点続く(인사에서 실점 지속)/福祉政策の失敗(복지 정책 실패)/政権重當は試練(정권운영시련)/三流国家(삼류국가)/氷の女王(얼음공주)/求心力が低下(구심력저하)/創造經濟の失敗(창조경제실패)/經濟民主化の失敗(경제민주화 실패)
은밀한 전략가	融和策に軸足を移した形だ(유화책으로 방향을 전환 형태)/米韓の強固な同盟関係を誇示しつつ、緊張緩和に向けた出口戦略(한미의 강력한 동맹 관계를 과시하면서 긴장 완화를 위한 출구 전략)	安倍政権を遠回しに非難(아베정권을 우회적으로 비판)/間接的な非難語句(간접적 비판 어구)/中韓蜜月(한중밀월)/親中派(친중파)/宣伝政治(선전정치)/告げ口外交(고자질외교)/対中蜜月(대중밀월)
소신적 원칙주의자	信頼プロセス(신뢰 프로세스)/強固な安保(강력한 안보)/原則をきちんと見せつける(원칙을 제대로 과시/ 対日強硬論(대일 강경론)	‘北’包囲網を強化(‘북’ 포위망 강화)/対日包囲網を一層強化(대일 포위망을 한층 강화)/歴史問題に対して原理原則を重視(역사 문제에서 원리 원칙을 중시)/リアリスト(현실주의자)/強力な安保路線(강력한 안보 노선)/原則を強調(원칙강조)

이미지 프레임	이미지 수식어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독자적 개혁자	歴代政権で異例のこと(역대 정권에서 이례적인)/中小企業大統領(중소기업 대통령)/歴代の最初(역대 최초)/女性の政治リーダーも登場(여성정치 지도자 등장)/かつてない「蜜月」関係(전례 없는 밀월 관계)/創造経済の失敗(창조경제)	異例的に言及(이례적으로 언급)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신문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 프레임 구축에 사용하고 있는 수식어는 6개의 이미지 프레임별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일본 언론에 나타난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 수식어는 부정적인 수식어가 긍정적 수식어에 비해 훨씬 두드러지게 사용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아사히신문>의 ‘퇴행적 반항아’ 이미지 프레임에 나타난 수식어는 ‘배려가 통하지 않는’, ‘측근 정치’, ‘폐쇄적인 방법’ 등의 수식어를 지배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인 측근 정치를 통한 인사 난항의 문제에 관한 보도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요미우리신문>은 ‘마리 앙투와네트’, ‘말이 통하지 않는’ 등의 수식어를 사용하여 측근 정치 및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 능력을 지적하는 부정적 어법이 나타나 비중과 강도에 있어서 <아사히신문>에 견주어 다소 원색적이었다. 이어 <아사히신문>의 ‘체화된 독재자’ 이미지 프레임에서 사용한 수식어는 ‘언론의 자유 위협’, ‘국정개입 의혹’, ‘민주주의 손상’ 등 국가 운영에 개입된 사건에 초점을 두는 반면, <요미우리신문>은 ‘친일파’, ‘친일파의 딸’, ‘친일 매국노’ 등의 매우 원색적이고 부정적인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무능한 주변인’ 이미지 프레임에서 <아사히신문>은 ‘혼란의 연속’, ‘우왕좌왕’, ‘구심력 저하’ 등의 수식어를 사용한 데 비해, <요미우리신문>은 ‘지지율 그늘’, ‘삼류 국가’, ‘얼음공주’, ‘정권운영 시련’ 등의 수식어를 통해 ‘무능력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 표현을 더욱 노골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은밀한 전략가’ 이미지 프레임에서도 나타났는데, <아사히신문>의 경우, ‘유화책으로 방향 전환’, ‘긴장 완화를 위한 출구전략’ 등의 표현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우회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비해, <요미우리신문>은 ‘한중밀월’, ‘선전정치’, ‘고자질 외교’ 등의 원색적이고 직접적인 수식어를 통해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한편, 긍정적 이미지 프레임인 ‘소신적 원칙주의자’에 있어서는 ‘강력한 안보’, ‘북 포위망 강화’와 같은 수식어를 사용하는 등 일본의 두 진영 언론 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독자적 개혁자’ 이미지 프레임에서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즉, <아사

히신문>은 ‘역대 정권에서 이례적인’, ‘역대 최초’, ‘창조경제’ 등의 다양한 수식어로 개혁의 이미지를 강조한데 비해, <요미우리신문>은 ‘이례적으로’라는 제한적인 표현을 통해서 개혁자의 이미지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전략을 엿볼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은 일본 언론의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 프레임 구축이 신문의 이념적 지향성에 따라 상당히 이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광범위 하게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국적 언론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보수 언론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사실과 그 이면에는 보수 언론이 국익 추구라는 가치에 매몰되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라는 언론의 규범적 역할과 책임에 있어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었다. 다만, 보수 신문의 이와 같은 보도 방식이 아베 총리라는 보수 정권이 아닌 진보 성향의 정권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즉, 보수 신문의 외교안보적 갈등 상대국 국가정상에 대한 이와 같은 이미지 프레임 구축이 보수적 이데올로기를 주창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진보적 이데올로기를 주창하는 지도자가 정권을 쥔 상황에서도 유효한 것인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언론의 편향성이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방식으로 추구되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4.2.2 아베 총리에 대한 이미지 프레임과 수식어

다음으로, 한국 신문에서 재현되고 있는 아베 총리에 대한 이미지 프레임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8>와 같다.

<표 8> 아베 신조 총리의 이미지 프레임

단위: %(건)

이미지 프레임	신문사		전체
	한겨레	조선일보	
퇴행적 반항아	26.9(35)	54.1(59)	39.3(94)
체화된 독재자	23.1(30)	2.8(3)	13.8(33)
무능한 주변인	12.3(16)	5.5(6)	9.2(22)
은밀한 전략가	12.3(16)	22.0(24)	16.7(40)
소신적 원칙주의자	9.2(12)	5.5(6)	7.5(18)
독자적 개혁자	16.2(21)	10.1(11)	13.4(32)
전체	100(130)	100(109)	100(239)

$x^2=37.937$, $df=5$, $p<.000$

위의 <표 8>는 한국 언론이 일본의 아베 총리에 대하여 가장 지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 프레임은 ‘퇴행적 반항아’(94건, 39.3%)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은밀한 전략가’(40건, 16.7%)와 ‘체화된 독재자’(33건, 13.8%), 그리고 ‘독자적 개혁자’(32건, 13.4%) 프레임이었다. 그러나 아베 총리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 프레임의 차이는 한국 신문의 이념적 지향성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chi^2=37.937$, $df=5$, $p<.000$), <한겨레신문>은 ‘퇴행적 반항아’(35건, 26.9%), ‘체화된 독재자’(30건, 23.1%)과 같은 이미지 프레임 구축 전략을 지배적으로 사용한 데 비해, <조선일보>는 ‘퇴행적 반항아’(59건, 54.1%)라는 이미지 프레임 구축에 절대적인 비중을 두면서 ‘은밀한 전략가’(24건, 22.0%)에 높은 비중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외교안보적 갈등 상대국 국가정상에 대한 이미지 프레임 구축 전략은 일본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 프레임 구축 전략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언론의 아베 총리에 대한 이미지 프레임 구축 전략 역시 신문의 이념적 지향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앞서 제시한 한일 국가정상에 대한 보도 태도에서 나타난 분석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한국의 신문이 아베 총리에 대한 이미지 프레임 구축 전략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분석 대상 기사의 제목과 기사 내용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 수식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9> 아베 신조 총리와 관련한 이미지 수식어

이미지 프레임	이미지 수식어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퇴행적 반항아	아베 내각의 자폐적 역사인식/아베 또 폭탄발언/아베의 역사역주행/아베본색/역사 부정의 극치 보여준 아베의 야스쿠니 인식/역사 반성 없는 일본/ 선 넘은 아베 / 아베 억지	아베 망언내각/아베 내각 대부분 망언 제조기/아베의 좌충우돌 외교/‘내정만을 고려한 가벼운 입’/부정아베/아베의 도발/아베의 궤변/아베의 ‘나 홀로 정상회담’/아베의 폭주/아베 정권의 과거사 폭주/
체화된 독재자	아베의 도발/외골수 아베/역주행 본격화한 일본/아베의 우익민족주의/ 일본 군국주의/ 아베 일방정치/ 우경화 가속페달 밟는 일본/아베 낙하산/히틀러, 아베, 분노의 정치/일본의군국화	‘우익 국수주의자’인 아베 총리/‘아베 정권은 급진적인 국수주의 내각’/국가주의 성향의 아베/국수주의 악마 숨긴 아베/ “아베 총리는 강고한 국수주의자”/ ‘위험한 국수주의자’
무능한 주변인	일본 국민도 안 믿는 ‘아베 호언’/ 애매한 일본의 아베/ 어리석은 위정자	“아베노믹스는 정치적 사기”/아베의 위험한 거짓말... 올림픽 유치 위해 IOC서 "原電 오염수 완전히 통제”/“아베노믹스 테이크(아베의 실수)’

이미지 프레임	이미지 수식어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은밀한 전략가	일 아베, ‘강한 중국’ 봉쇄 노리나/밖에서는 욱떡어도… 아베 자민당, 안에선 승승장구/아베 노림수	아베의 외교 브레인/아베 총리가 내건 적극적 평화주의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
소신적 원칙주의자	아베 총리 “오염수 유출 책임지고 대응”	아베 “강한 일본 되찾자”/‘현실주의적인 외교노선’
독자적 개혁자	아베노믹스 급가속/아베지지율고공행진/아베정권의 압승	아베 정권 압승

일본 언론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 프레임 구축에서 나타난 분석의 결과와 같이, 한국 언론이 아베 총리에 대한 이미지 프레임 구축에 사용하고 있는 수식어도 6개의 이미지 프레임별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 언론에 나타난 아베 총리에 대한 수식어도 부정적인 수식어가 긍정적 수식어에 비해 훨씬 두드러지게 사용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퇴행적 반항아’ 이미지 프레임에서 <한겨레신문>이 중점적으로 사용한 수식어는 ‘자폐적 역사인식’, ‘폭탄발언’, ‘선 넘은 아베’ 등의 수식어가 사용한 데 비해, <조선일보>도 ‘망언내각’, ‘망언제조기’, ‘폭주’ 등의 수식어를 사용하여 양국 공히 직설적이고 원색적인 표현으로 아베 총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프레임을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체화된 독재자’ 이미지 프레임에서도 적용되고 있었다. <한겨레신문>은 ‘외골수’, ‘군국주의’, ‘일방정치’ 등의 수식어를 통하여 그리고 <조선일보>는 ‘(우익) 국수주의’ 혹은 ‘국가주의’라는 한정된 표현을 사용하여 독재자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어 ‘무능한 주변인’ 이미지 프레임에서도 두 언론 모두 ‘어리석은 위정자’, ‘위험한 거짓말’ 등의 수식어를 통해 부정적 이미지 프레임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은밀한 전략가’ 프레임에서는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노림수’, ‘외교 브레인’ 등의 표현을 통해 우회적으로 아베 신조 총리를 묘사하고 있었다.

한편, 긍정적 이미지 프레임의 범주에 해당하는 ‘소신적 원칙주의자’로서 아베 총리에 대해서는 ‘책임’과 ‘현실주의’의 표현이 사용되었고, ‘독자적 개혁자’ 이미지 프레임에서는 ‘급가속’, ‘지지율 고공행진’, ‘압승’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일본 신문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 프레임과는 일정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즉 일본 언론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 프레임은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지향성에 따라서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 반해, 한국 언론의 아베 총리에 대한 이미지 프레임은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의 논리와 그에 따른 다양성의 폭이 협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따라서 원색적이고 직접적

인 표현을 보다 두드러지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차원에서 해석의 여지가 가능할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한일 언론의 보도 차이는 역사적 피해 사실과 밀접한 관련성이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일본의 침략과 식민 통치, 그리고 이후의 독도 분쟁과 일본군 위안부 및 교과서 왜곡 등의 다양한 외교안보적 위기의 피해국인 한국의 국적 언론은 일본 사회와 정부로 상징되는 아베 총리를 신문의 이념적 지향성을 초월하여 부정적인 존재로 재현하는데 비해, 가해 당사국으로서 일본의 언론은 한국 사회와 한국의 정부로 상징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재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4.2.3 국가 정상 이미지 프레임으로 본 국익 추구 전략의 차이

이상에서 살펴본 한일 언론의 상대국 국가정상에 대한 이미지 프레임 구축 전략의 차이는 다양한 의미를 제공해 준다. 특히, 외교안보적 현안이 대립이라는 반목을 거듭하고 있는 국가의 존립과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한국과 일본의 국가정상을 둘러싼 이미지 프레임에 대한 분석은 그것을 통해서 한일 언론이 추구하고자 하는 국익 추구 전략의 일단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해준다. 물론 이러한 국익 추구 전략은 기사의 유형이나 보도 주제, 나아가 국가정상에 대한 보도 태도와 같은 보도양상을 통해서도 일정 부분 추론이 가능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보도에서 실제로 추구하고자 하는 이미지 프레임과 그러한 이미지 프레임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사의 제목이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식어나 표현을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한일 국가정상에 대한 양국 언론의 이미지 프레임에 대한 분석은 한일 언론의 국가 이익 추구 전략에 있어 다음의 두 가지에 있어 뚜렷한 접근의 공통점과 차이를 드러내었다. 먼저, 한일 언론의 상대국 국가정상에 대한 이미지 프레임 구축은 언론의 국적에 따라 공통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언론의 국가 이익 추구 전략의 기본은 상대국 국가정상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과 시선을 통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외교안보적 갈등 당사국이라는 국가 이익을 우선시 하는 보도가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 상대국 국가정상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프레임보다는 부정적 이미지 프레임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무수한 수식어와 표현이 난무하고 있었다. 상대국 국가정상에 대한 보도는 외교적 수사나 존중보다는 철저하게 자국의 이해관계에 방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는 위기의 당사자로 지목하려는 경향성이 보도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었으며, 이러한 보도를 통해 오로지 상대국의 입장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국익을 추구하는 주된 전략으로 삼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한일 언론을 통해서서는 양국을 외교안보적 협력의

대상자 혹은 동반자로 인식하려는 움직임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이러한 갈등과 대립에 기반 한 반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국익 추구 전략으로 대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한일 언론의 상대국 국가정상에 대한 이미지 프레임 구축과 그에 따른 국가 이익 추구 전략은 언론의 이념적 지향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의 언론이 보여준 아베 총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프레임은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의 논리를 초월하여 적용되는 일종의 불문율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국 언론은 일본과의 외교안보적 갈등과 논란에 대한 국가 이익이 대화나 협상의 상대국으로 인정하는 전략을 통해서 더 잘 추구되기보다는 상대국 국가정상의 모든 발언과 동정에 대한 비판적인 기조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추구될 수 있음 전제한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일본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동원하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 프레임에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지향성에 따른 국익 추구 전략의 차이를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일본의 진보 진영을 대변하는 <아사히신문>은 보수 진영의 대변자인 <요미우리신문>에 비하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 프레임에서 훨씬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국익 추구 전략에 있어 한국의 언론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해당 신문이 강조하는 이미지 프레임 자체의 차이를 통해서도 드러났지만, 무엇보다도 그러한 이미지 프레임을 강조하는데 동원되거나 표현된 수식의 내용과 표현의 강도를 통해서 내용적인 차이를 엿볼 수 있었다.

갈등 당사국으로서 아베 총리에 대한 한국 언론의 국가이익 추구 전략은 다분히 진보와 보수를 가로지르는 일원적 접근이라고 한다면, 일본 언론에 나타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보도는 진보와 보수 진영의 가치와 이해관계를 보다 다면적으로 반영한 이원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국익 추구 전략에 있어 일정한 차이를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한일 언론의 양국 국가정상에 대한 이미지 프레임 구축 방식과 그 이면에 작용하는 국가 이익 추구 전략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보도가 국익 추구 전략으로서 나은 것인지를 판단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또한 이러한 보도의 차이와 그에 따라 유추되는 국익추구 전략의 차이는 단순히 보도의 질적인 차원을 떠나 한국과 일본 양국 사이에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민족적 갈등과 외교안보적 입장의 차이라는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맥락과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기에 그 질적인 평가를 단선적으로 논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5. 연구의 결론 및 함의

오랫동안 반목과 갈등을 반복해 온 한일 외교안보적 위기가 전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맞이한 ‘제 94주년 3·1절 기념사’에서 한일 관계는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사실을 강조한 바 있고, 아베 신조 총리 또한 우경화 정책 및 헌법 개헌 등을 통해 국제 사회로부터의 역사적 명예를 벗기 위한 의지를 고수하면서, 양국의 외교안보적 교착 상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시각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 외교안보적 위기와 갈등 국면에서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한일 언론의 국가정상에 대한 보도는 객관성과 공정성이라는 규범적 역할과 책임은 외면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한일 언론 보도에 나타난 양국 국가정상에 대한 보도양상과 이미지 프레임 분석은 그 이면의 국익 추구 전략의 차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할 것이다.

먼저, 보도양상과 관련하여 한일 언론은 전반적으로 해설과 사실, 나아가 칼럼이나 논단 등의 기사유형을 통해서 한일 국가정상을 심층적이고 비중 있게 다루려는 노력을 보이면서, 양국 정상의 ‘국제외교’와 ‘역사인식’ 관련 발언이나 행보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두고 있었다. 한일 국가정상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태도와 인식이 높은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진보 성향의 신문들은 상대국 국가정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보수 신문의 인식보다 훨씬 더 유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양상이 가지는 신문 보도의 외연적 특성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도의 차이는 갈등 당사국의 국가정상에 대한 보도는 언론의 국적과 이념적 지향성에 따라 일정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시사 받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이미지 프레임에 대한 분석에서 한일 언론은 상대국 국가정상에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미지 구축 전략은 국적 언론의 이념적 지향성에 따라 확연한 차이가 있었는데, 한국의 언론은 아베 총리에 대해서 부정 일색의 보도를 통해서 ‘원색적인 비난과 비판이 국익이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는 국익 추구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일본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선은 신문의 이념적 지향성에 따라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언론이 아베 총리를 원색적이고 높은 수준의 비난과 비판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거의 대등한 수준의 보도를 통해서 부정적인 이미지 프레임을 구축하고 있는데 비해, <아사히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한일의 나머지 세 신문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완곡한 비판을 통한 부정적인 이미지 프레임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는 국가 이익을 우선하는 한일 언론이 외교안보적 갈등

상대국의 국가정상을 다루는 보도 전략에 일정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해 줌과 동시에 국익을 추구하는 전략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한국 언론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상대국 국가정상을 바라보는 인식이 이념을 초월할 정도로 강하게 작용한 결과이며, 반대로 가해국 입장의 일본 언론은 그러한 ‘입장과 틀’로부터 상대적으로 매우 자유로운데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한일 언론의 이미지 프레임과 그에 따라 추론되는 국익 추구 전략의 어떤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 선불리 내리기 어려운 문제이다. 여기에는 단순히 국익이라는 차원 이외에 한일 간의 역사적 갈등과 상처,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민족의 분노와 감정의 구조 등 언론 보도가 충분히 사려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맥락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의 국가정상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그것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국적 언론의 국익 추구 전략과 무관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일 국가정상을 두고 양국 언론이 구축하는 이미지 프레임, 이미지 프레임의 실체, 그러한 이미지 프레임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국익 추구 전략에 대한 이해와 성찰은 한일 갈등과 대립이라는 외교안보적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최소한의 노력이라 할 것이다.

한일 언론의 상대국 국가정상에 대한 이미지 프레임 분석을 통해서 이들 언론의 국익 추구 전략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하였으나, 현실적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국제외교’와 ‘역사인식’과 관련된 주제의 비중이 높아 한일 국가정상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프레임이 과도하게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표집의 한계 또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분석에서 제외한 500자 이하의 기사나 한일 국가정상을 부차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기사도 이미지 프레임이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한일 언론의 상대국 국가정상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프레임이 과도하게 나타났을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參考文獻】

- 구영록(1994)「대외정치 의 핵심개념으로서의 국가이익」『한국과 국제정치』제19권
 김동윤(2015)「정권시기별 ‘북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 관련 보도양상과 프레임: 보수지와 진보지, 그리고 지역지 간 비교를 중심으로」『언론과학연구』제15권 1호
 김성해(2008)「국가이익과 언론: 미국 엘리트 언론의 국제통화체제 위기 보도를 중심으로」『한국언론정보학보』제5권 42호
 김현주(1999)「대통령후보에 대한 이미지 형성과 커뮤니케이션」『한국방송학보』제12권
 김혜성(2010)「대학생의 정치지도자의 이미지에 대한 Q 방법론 연구: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평화연구』

제18권 1호

- 노형신·신호창·허중욱·박성화(2012)「해외 언론의 한국에 대한 취재보도특성과 반영된 한국 이미지: 2006~2009년 6개국 7개 언론사 보도에 대한 내용분석」『홍보학연구』제16권 3호
- 설원태(2012)「역대 한미대통령 묘사프레임 비교 분석: 뉴욕타임스와 조선일보의 한미정상회담 보도를 중심으로」『언론정보연구』제49권 1호
- 오명원·김성해(2015)「대외정책의 변화와 집단정체성 담론: 언론이 재현하는 제일코리아」『커뮤니케이션이론』11권 1호
- 유승관·강경수(2013)「한국과 일본 신문에 나타난 상대국 관련보도 특성에 대한 연구」『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제31호
- 윤영철(1998)「한일신문의 독도관련 분쟁 보도의 비교분석」『한국사회과학논집』제29권
- 이운진(2007)「영국에서의 한국이미지와 스토리텔링/서사의 변화: 2002년~2005년 <The Times>에 나타난 한국 관련 기사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한국언론학보』제51권 1호
- 이장한·김승현·최현철(2007)「한국 언론인의 국익에 관한 인식유형 연구: Q방법론의 적용」『주관성 연구』제48권 6호
- 이준웅(2001)「갈등적 이슈에 대한 뉴스 프레임 구성방식이 의견형성에 미치는 영향」『한국언론학보』제46권 1호
- 임미영·안창현·김규식·유홍식(2010)「박근혜에 대한 보도 프레임 분석: 조선일보와 한겨레를 중심으로」『언론과학연구』제10권 3호
- 임순미(2012)「정치인의 이미지 프레이밍: 안철수에 대한 보고 양태 분석」『현대정치연구』제5권 2호
- 정성호(2002)「대통령 후보자 이미지에 관한 유형 연구」『주관성연구』제12권
- 정수영·한경호(2015)「한일 주요 일간지의 한류 관련 뉴스 프레임과 국가 이미지: 기사 헤드라인에 대한 의미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한국언론학보』제59권 3호
- 조성식·유재구·김혜자(2007)「월드베이스볼클래식(World Baseball Classic) 한일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주요 신문보도 비교분석」『한국체육학회지』제46권 6호
- 최영재(2005)「언론의 정파성과 대통령 보도, 그리고 언론자유」『언론과 법』제4권 2호
- 최영재·박동진(2012)「정인과 CEO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인지적, 감정적 요소의 구성과 효과」『홍보학연구』제16권 3호
- Graber, D. (1988)『Processing the news: How people take the information tide』New York: L ongman.

논문투고일 : 2015년 12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5년 12월 20일
1차 수정일 : 2016년 01월 08일
2차 수정일 : 2016년 01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6년 01월 19일

<要旨>

한일 언론의 상대국 국가정상에 대한 보도양상과 이미지 프레임 연구

- 언론 미디어의 국적과 이념적 지향성을 중심으로 -

이 연구는 한일 양국의 언론이 상대국 국가정상을 바라보는 방식의 차이를 보도양상과 이미지 프레임에 초점을 두고 귀납적 내용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한일 양국 언론이 외교적 갈등 상대국 국가 정상에 대해서 다루는 방식은 언론 미디어의 국적과 해당 언론의 이념적 지향성에 따라 일정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먼저, 보도양상에서 한일 언론은 상대국 국가 정상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무엇보다 한일 공히 진보지가 보수지에 견주어 상대국 국가 정상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유연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이미지 프레임에 있어서도 아베 총리에 대한 한국 언론의 이미지 프레임은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의 논리를 초월하여 부정 일색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일본 언론은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지향성에 따라 이미지 프레임 구축에 일정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외교적 갈등 상대국 국가 정상에 대한 한일 언론 보도의 차이를 통해 기본적으로 한일 언론은 자국의 국가 이익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면서도 그 추구 전략에 있어서는 일정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한일 양국의 외교적 갈등이 과거사에 기반한 가해국과 피해국의 입장과 따로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전략의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 study of Manner of Reporting and Image Frames of Head of State of Korean and Japan in the Mass Media

- Nationality and Ideological Orientation of the Mass Media -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inductively the differences of the way in which Korea and Japan understand each other through the mass media based on manner of reporting and image frames. The result of the study shows that there exists consistent differences in the way in which the mass media of both countries deal with head of state of each other's country in conflict relations according to the press nationality and its ideological orientation. First, with regards to manner of reporting, media manners, there was consistent differences in the way in which the mass media of the two countries deals with each other's head of state, although it shows high interests in the heads of each state. Especially, the progressive press in both nations is much more flexible in dealing with the head of the other country. Next, in image frames too, all Korean Press regards Minister Abe as very negatively regardless of their ideological orientation. In contrast, there is some difference in the report on president Park's image frames in Japanese press according to ideological orientation. It turned out that while the Press of both countries show some difference in terms of reporting strategies, each country's press basically pursue their own interests. However, further discussions are needed in order to figure out where such strategies come from and what they mean, given that the two countries' conflict is inseparable from the obvious fact that Japan is a assault country, whereas Korea is affected one.